



흥미롭다. 풋볼 경기를 생각해보자. 점수에서 뒤져 패배한 팀의 코치가 인터뷰에서 말한다. “우리는 점수는 뒤졌지만 우리 팀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 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진행된다면 규칙도 무의미해지고 논쟁도 끝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스포츠잡지 작가가 NAB나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이 실은 총 경기 득점에서 다른 팀에게 뒤졌기에 결국은 우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물론 총득점 수가 우승에 연관 있는 상관계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이 그렇지 않기에 총 득점 수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만약 경기 평가규칙이 바뀐다면, 스포츠 팀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규칙에 걸맞은 전략을 세울 것이다. 정치도 이와 같다. 정치라는 스포츠게임의 규칙에 걸맞게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는 정당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0608>